

투데이

금호石化 차명계좌서 아시아나 비자금 포착

검찰, 60억~100억 추정

금호석유화학이 최소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적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27일 "비자금 조성 의혹을 확인하고자 금호석화 본사와 계열사, 협력업체 등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계좌를 들여다 보고 있고 차명계좌도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2009년 박삼구,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전 금호석화 협력업체가 개설한 차명계좌 10여개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측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한' 돈의 액수는 계좌당 5억~6억원씩 최소 6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 돈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처음 그런 큰 그림에서 이제 절반 정도 수사가 진행됐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금호석유화학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지난 13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죄지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다. 누구 인지는 알아서 판단하라"라며 비자금 조성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관련됐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비자금 부분은 처음부터 자신 있었다. 검찰에서 조사받고 온 사람들 말을 들어 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화를 뒤지다가 안 나오니까 수사 방향이 틀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받은 바가 전혀 없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정말 검찰 조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호그룹은 2009년 6월 박삼구·박찬구 회장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쪼개졌다. 두 회장은 형제의 난 당시 동반퇴진했으나 박찬구 회장은 지난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박삼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으로서 경영에 복귀했다. /연습뉴스

장성 나노산단 개발 산단공이 맡는다

LH 포기로... 내달 3일 공단·도·郡 MOU 2015년 준공 목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정으로 포기한 장성 나노산단단지 조성 사업이 시행자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바꿔 다시 추진된다.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에 따르면 공단과 장성군, 전남도는 다음달 3일 장성군청에서 장성 나노기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나노산단은 장성군 진원면과 남면 일원에 90만1865㎡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용지가 51만9000㎡, 주거용지는 2만9000㎡, 상업용지 1만7000㎡, 지원시설용지 4만5000㎡, 공공용지 29만2000㎡ 등이다.

유치 업종은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과학기술(BT), 환경기술(ET) 등으로 광주·전남지역 나노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단공은 오는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상과 함께 착공에 들어가

2015년 준공할 예정이다.

광주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된 장성 나노산단은 호남고속도로와 국도가 인접해 접근성이 좋다.

특히 광주 첨단산단 배후 단지로, 호남권 광역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센터·전자부품연구원·응용레이저 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이 밀집해 있다.

실제 지난 2월 호남지역 254개 기

장성 나노기술산업단지 위치도



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렴한 분양가와 주변 인프라 등으로 인해 55개사가 입주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노산단은 지난 2007년 9월 지정 고시돼 2013년 준공 예정이었던 시정자인 LH가 재정난으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 산단공이 맡게 됐다.

최종대 산단공 호남권본부장은 "최대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IT·NT·BT·ET 등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나노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저렴하고 적기에 산업용지를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식품위생 감시는 이렇게...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 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열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광주지역 5개 자치구 300여명의 감시단원들이 광주시청 식품안전과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 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열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광주지역 5개 자치구 300여명의 감시단원들이 광주시청 식품안전과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삼성, 새만금에 7조6천억원 투자

'그린에너지 산단' 구축 1차 2021~25년

삼성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 11.5km(350만평) 부지에 2021년부터 20년간에 걸쳐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그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차로 4.1km(125만평) 부지에 7조6천억원을 투자해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생산기지, 그린에너지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세종로 정부중

금에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앙부에 위치해 중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 진출의 최적 입지로 평가되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1차 투자에 이어 2026년부터 2030년에는 2차로 새만금 3.3km(100만평)에 에너지저장시스템, 풍력발전기 및 태양전지 증설 등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2031년부터 2040년까지는 4.1km(125만평) 부지에 연료전지 분야 등을 추가로 투자해 그린에너지 종합 산업단지를 완성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의 이번 투자 결정은 새만

금에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앙부에 위치해 중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 진출의 최적 입지로 평가되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1차 투자에 이어 2026년부터 2030년에는 2차로 새만금 3.3km(100만평)에 에너지저장시스템, 풍력발전기 및 태양전지 증설 등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2031년부터 2040년까지는 4.1km(125만평) 부지에 연료전지 분야 등을 추가로 투자해 그린에너지 종합 산업단지를 완성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의 이번 투자 결정은 새만

세계 한상대회 유치 실패 시·도 협조체계 미흡 비난

광주시와 전남도가 2012년 세계 한상대회 유치에 실패, 지역 경제 상생 발전을 위한 전남도와 광주시의 협조 체계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2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의 버나비 힐튼호텔에서 '제18차 한상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2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서울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내년 한상대회 개최를 위해 1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월 지역 상생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공동 유치전에 나섰지만 결국 유치에는 실패, 양 시·도간 유기적인 협조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한상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700만 재외 동포와 국내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구축, 한민족의 경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경제인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주관해 개최되고 있다. 40여개국 1500여명의 세계 한상은 물론 국내기업인 등 3500여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비즈니스 이벤트인 탓에 광주·전남 산업단지를 완성하기로 했다. /연습뉴스

전남지사가 여수 유치를 공식 선언한 뒤 여수시와 공동으로 유치 실무조직까지 꾸려 한상대회 유치에 뛰어들었고 광주시는 지난해 유치전에 본격 가세하는 등 개별적으로 유치전을 펼쳐왔다.

이후 시·도간 경쟁 구도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 개최에 뜻을 모아 지난 2월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 유급전에 나섰지만 끝내 실패했다. 고급 호텔 등 숙박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점도 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석면안전관리법' 오늘 공포

슬레이트가옥 처리비용 지원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건강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28일 공포돼 슬레이트 건물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이 1년 유예를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되면 전국 123만 슬레이트 가옥에 대한 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해져 영세 농어가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내달 16~17일 광주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9개 도시·15개 기구 참석 확정

오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1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에 9개 인권도시와 15개 인권기구·단체가 참석하기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27일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에 독일 라이프치히시와 미국 워싱턴 DC 및 유진시, 뉴욕시, 멕시코 시티, 일본 사카이 및 히로시마, 대만 가오슝, 말레이시아 페낭 등 9개 도시가 참가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 인권정책연구소, 제네바 인권교육훈련 워킹그룹, 아시아인권위원회, 하버드대 인권연구소 등 15개 인권기구·단체도 직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에는 해외인사 40명 등 국내외 인권

관련 인사 110여명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전체회의에서는 광주인권도시와 15개 인권기구·단체가 참석하는 주제로 각각 토론이 이뤄진다. 개막식 축사는 UN인권 최고대표 특사인 호마운 잘리자데와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UN 사무총장이 특별메시지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막식에서는 광주시장 및 해외인권도시 대표들이 '광주인권도시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세종로 정부중

당신의 현장에 힘이 되어 드립니다!

지게차 임대·렌탈

한국보다 굴삭기 광주·전남 대리점

굴삭기·지게차·판매·임대·A/S·중고매매·캐피탈

덕승건설(주) · 덕승물류기계

T.959-0100, 374-1686, 010-8108-2500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

용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존재)

문의 02)6908-7021, 7024 (연사중무팀)

*참조: 공시지가 ₩1,130,000~ ₩1,320,000/㎡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

농업인 구합니다!

도시근교 농장에 숙식을 하며 농사일을 할 분을 찾습니다!

모집인원 0명

근무일수 주 1회 휴무(평일)

근무조건

숙식가능자, 농사일 유경험자 우대

경운기 작동 가능자

근무장소 전남 화순군 영남리

급여 면접 후 결정

접수방법 팩스접수 / 방문접수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본 1통

연락처 062)651-8871

FAX 062)652-8866

서광타워(주)

법인중소기업 회생 안내!

1. 법인회생이란?

장래 기업가치는 있으나 과도한 부채 또는 보증채무로 인해 현재 경영상황 악화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힘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을 소생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요건은?

① 현재의 지속적인 수익은 있으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②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사업장에 압류,가압류,근저당 경매절차등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는 기업.

③ 만기 도래의 채무에 예정되어 해당 채무로부터 어려움에 처한 기업으로 신용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법인 중소기업체 개인사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의사,한의사,약사) 공무원 등

3.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① 원칙적으로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됩니다.

② 회사의 채권자들이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한 및 금지되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내용 -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중지 - 압류,가압류,가처분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 - 국제,지방세,4대보험료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중지 및 회생계획안으로 상환

③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를 회생 10년간 분할 상환, 유예, 감면 등이 가능합니다

④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우선 선배하여 직원들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⑤ 주요 상거래채권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어서, 연쇄도산을 막고 계속 사업을 위한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⑥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 이후에는 교환에 회부된 담보채무는 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부정신평단속법"에 의한 행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경매가 진행중인 기업체도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채에 고안하지 마시고 저희 "김길수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전화상담은 물론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 철저한 신분보장과 비밀을 약속 드립니다.

변호사 김길수법률사무소 062-226-2785

기업회생팀 010-5879-8300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연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한도: KBA/세 -80%+α (60%) 전세권 한도: 보증금의 -80%

담보대출 금리: 연 3.93%~ 담보대출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